

일대일로

중국의 이기적인 사업일까?



한중경제통상이슈

중국학과 20171542 김형진

목차

중국의 이기적인 사업일까?

01 주제 선정 동기

04 일대일로
등장 배경과 진행 사례

02 일대일로란?

05 일대일로로 인한 피해

03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목표

06 일대일로 전망

1. 주제 선정 동기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과감한 투자인가 고리대금업인가?

셀리아 해튼
BBC News

2021년 10월 1일

B B C NEWS 코리아

중국몽(中國夢) '일대일로', 그 기회와 함정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
pressian.com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일대일로'는 보장된 기회가 아니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8.07.27. 10:41:34 최종수정 2018.07.27. 10:41:50



일대_육상 실크로드
일로_해상 실크로드

일대일로 一帶一路

“ 중국이 추진 중인 신(新) 실크로드 전략 ”



2. 일대일로 노선

구분	일대일로 新 로드맵
일대	중국 → 중앙아시아 → 러시아 → 유럽
	중국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 → 페르시아만 → 지중해
	중국 → 동남아시아 → 남아시아 → 인도양
일로	중국 연해 → 남중국해 → 인도양 → 유럽
	중국 → 남중국해 → 남태평양



One Belt, One Road

3.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목표

3. 일대일로 시행 목적



중국 내 시행 목적

- 서부 동북 3성 대개발
- 내수시장을 확대
- 자원 부족 문제 해결 가능
- 중국의 외교적 지위 강화



중국이 말하는 전세계적 시행 이유

-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발전
- 각 국가의 공동 부유 이룩
- 전 세계적인 무역과 투자 촉진
-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확보

3. 일대일로 5대 핵심 이념



1. 인프라 연결

2. 자금 조달 (무역 원활)

3. 민심 상통

4. 자금 융통

5. 정책 소통

교역 확대와 위안화 국제화

중국몽 실현

공동 부유 이룩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

3. 일대일로 최종 목표





중국 영향력서 벗어나려는
일대일로 참여국 움직임

실크로드 경제벨트

4. 일대일로 등장 배경과 진행 사례

Nazarbayev 대학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



4. 일대일로의 첫 등장

← 2013년 9월

시 주석은 7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나자르바예브 대학에서 2100년 역사를 지닌 실크로드를 되살려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실크로드 경제권을 위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태평양에서 발트해까지 연결통로를 만들고 이를 동유럽과 서남아시아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물리적으로 교통로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화폐 등 금융거래를 확대하고 무역을 늘려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중앙아시아 인구 30억 명을 묶는 거대한 경제협력지구가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4. 일대일로 진행 사례-2013~201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함께 2015년 한 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주제이다. AIIB는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을 이행하는 금융 플랫폼으로서 개발되었다.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방문 시, AIIB 설립을 제의하면서 구체적인 수립절차가 시작되었다. AIIB의 설립목표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지역 내 연계 및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임소진 2016).

4. 일대일로 진행 사례-2015

- 중국 정부는 2015년 상반기에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한 담당기구를 설립하고, 이어서 행동계획과 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2월에 ‘일대일로건설공작영도소조’가 설립되었고, 소조 위원장으로 장가 오리(張高麗) 부총리가 임명되었음.
 - 3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외교부, 상무부는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비전 및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발표함.
 - 에너지 국제협력이 ‘일대일로’ 대상국(주로 파키스탄, 러시아, 중앙아시아, ASEAN국가, 중동, 유럽 등)과의 양자 협력에서 중요한 분야라고 명시되어 있음.
 - 4월에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 3개)’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해상 2개)’ 등 총 5개 노선의 ‘일대일로 新로드맵’을 발표하였음.

4. 일대일로 진행 사례-201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IIB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창립회원국이며, 최대자본금은 약 1천억 달러에 이르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세계은행(WB) 등 다른 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6월 인도네시아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오만, 아제르바이잔 등 총 8개 국가에 9개 사업을 승인·지원하였다. 우리나라의 AIIB 주요 투자대상 부문은 기존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거둔 에너지와 운송 인프라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일대일로 진행사례-본격적인 사업 시작~현재

중국은 2008년을 전후로 해외 대출을 늘려 왔으며, 일대일로가 본격화된 2014년부터 IMF·WB 등을 제치고 공공부문 신흥국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하였다<그림2>. 투자 지역은 64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138개국 및 30개 국제기구가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동남아·중앙아·아프리카등이 핵심 투자 지역(2020.1월 기준)이다. 전세계 6개 대륙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투자 금액은 동남아시아(55%)가 절반을 상회하고, 중앙아시아(34%)·아프리카(11%) 순이다. 핵심 사업 영역인 6대 경제회랑²⁾에 세계 인구의 2/3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일대일로 사업은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일대일로 현재 공식 참여국가는 약 64개 국가 (대표적으로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 러시아 등등)
 - 중국은 현재 14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힘
-

4. 일대일로 진행사례-본격적인 사업 시작~현재

아프간 "일대일로 틀 아래 中과 무역·인프라 등 협력 희망"

中-아프간 외무장관 회동...친강, 美에 對아프간 제재 해제 촉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요인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틀 안에서 중국과 경제·무역, 인적 교류, 인프라 건설 등과 관련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현재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 전달
 - 주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대
-

4. 일대일로 진행사례-본격적인 사업 시작~현재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를 연내에 **철회할 의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중국을 압박하는 고리는 하나 더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9일 보도에서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맞대응해 3천억 유로(약 403조원) 규모의 인프라 등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

블룸버그통신 등은 지난달 8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5~10개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1월 중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들과 합의한 B3W(Build Back Better World)는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40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개도국 등에 막대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부채의 함정에 빠트리고 부패를 조장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 현재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대일로 탈퇴 희망 국가 출현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일대일로 대응 정책 마련



5. 일대일로로 인한 피해



1) 참여국들의 부채 폭탄-스리랑카

- 함반토다 항만 건설 비용과 이용비용 중국으로 대출
- 재정 상황 저조
- 갚을 능력이 없어 디폴트 상황 선포
- 함반토다 항구 중국에 99년 동안 조차
- 일대일로로 현재 스리랑카 정권교체



1) 참여국들의 부채 폭탄-라오스

- 중국 의존도 심화
 - 철도 인프라를 건설 목적으로 건설, 기간 지연, 이용 비용 모두 중국으로부터 대출
- > 어려운 국가 재정 상황 속 고금리 대출로 더욱 어려워짐



1) 참여국들의 부채 폭탄-파키스탄

- 과다르항 현재 중국의 군사기지과 다를 바 없음
 - 파키스탄은 대홍수 사태와 일대일로로 재정 피해 심각
 - 중국에게 고금리 대출로 생긴 빚 점점 증가하는 상황
 - 현재 디폴트 상황
 - 중국인들을 향한 폭탄 테러 위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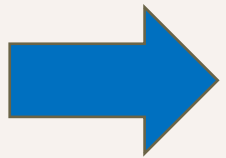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군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12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엘 러셀 등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해외에 개발 중인 상업용 항구들은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들에 중국판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위성항법장치)인 '베이더우'(北斗·북두칠성)를 수출하고 군사훈련을 늘리거나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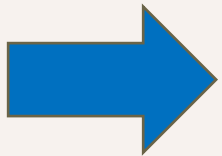
2) 중국의 군사 개입 우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투자한 파키스탄 과다르, 캄보디아 코콩, 스리랑카 함반토타, 미얀마 카우푸유 항만시설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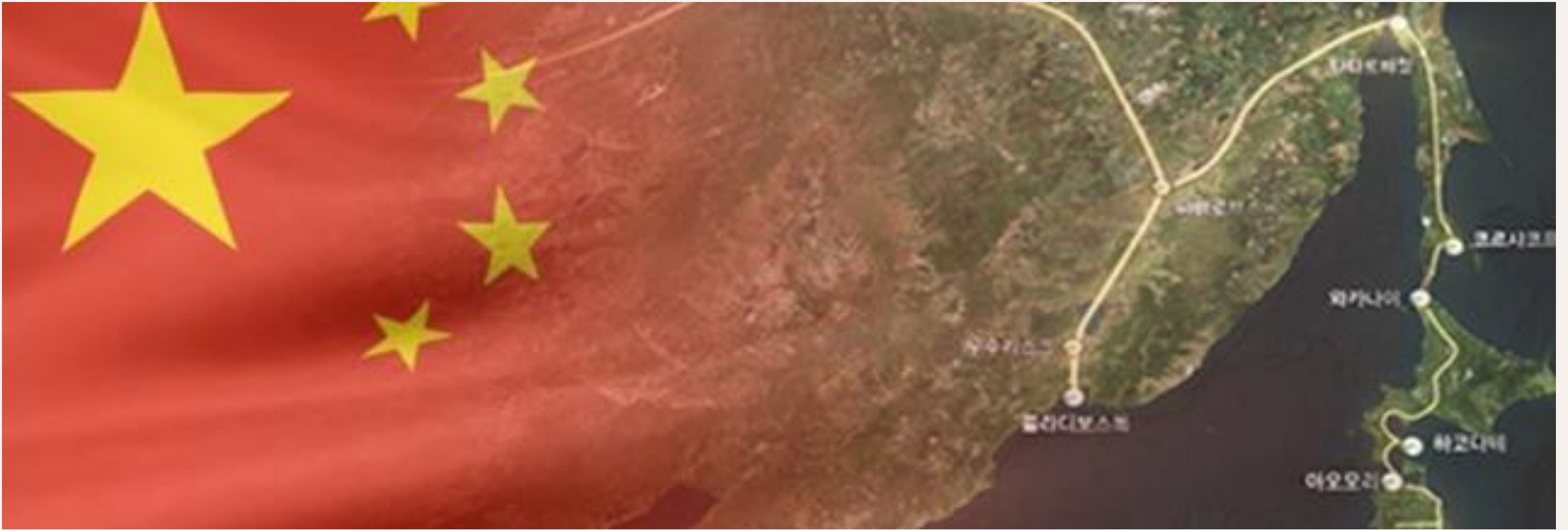


- 현재 중국은 타 국가 항만을 군사기지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군사 훈련, 무기 판매를 진행하면서 군사 개입 우려

3) 인프라 시설의 애물단지와 부실 공사



- 발전소와 공항, 도로를 지어주었지만 붕괴, 부실공사로 증명
- 비용 지출 많으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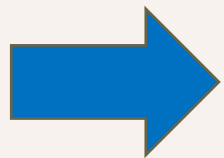


6. 일대일로 전망

중국의 이기적인 사업

1. 일대일로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부채
 2. 경제나 정치 군사 주권 침해하는 행위
 3. 중국의 패권 확대 목적
-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주변국에 막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인도 입장에서 상당한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의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에 대한 99년 장기운영권 획득('17.7),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건설 추진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인도를 포위하는 해상실크로드의 진주목걸이 전략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도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프로젝트를 수행한 국가들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인프라의 운영권을 빼앗기거나 채무위기 한계에 직면하게 된 스리랑카·말레이시아·아프리카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대일로에 대한 경계심도 확산하고 있다.



- 일대일로 참여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 국가에서 채무상환 위기 발발
- 인도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일대일로 참여를 비난하고 경계함.

미국 등 서방은 일대일로에 대해 중국의 글로벌 경제 패권 추구의 수단이며 인도양 주변국에 대규모 항만 건설을 통해 군사 전략적 패권을 노리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며 경계한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 중국 자본을 빌려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일대일로 인프라 구축에 동참했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항만 운영권 등을 중국에 넘기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일대일로 추진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중국은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해 201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중에 있음. 이에 대해 중국이 지부티를 ‘진주목걸이 전략’에 포함시켜 단순히 에너지 수송로의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임³³⁾

- 일대일로 참여국을 군사적 기지 이용
 - 말은 인프라 구축, 현실은 군사기지화
 -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경제 뿐만 아니라 군사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의도 경계
-

이탈리아, '中 일대일로'에서 마음 뒀나?... "美에 탈퇴 의사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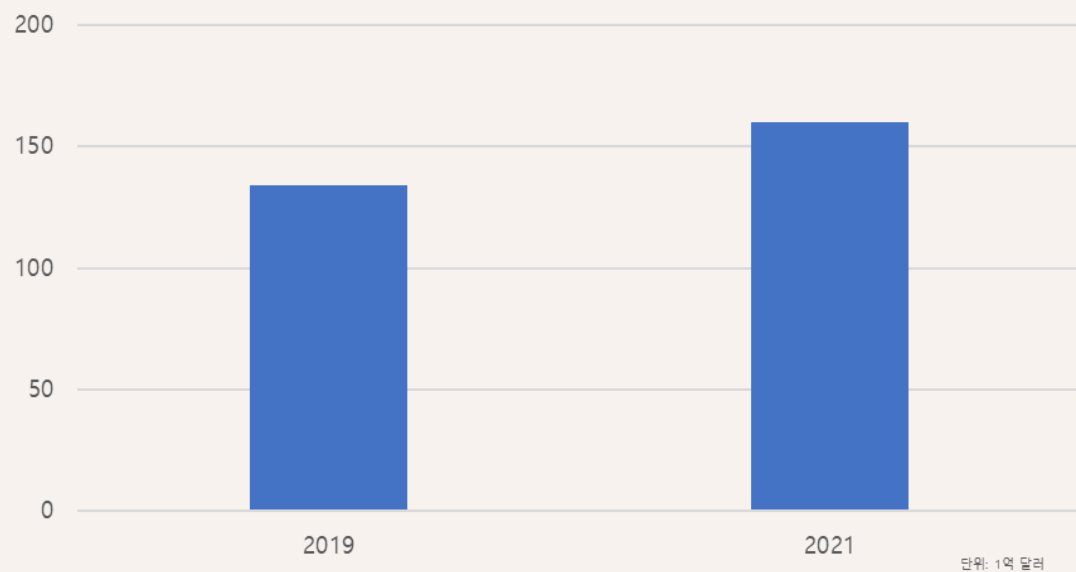


1) 現, 이탈리아 일대일로에서 탈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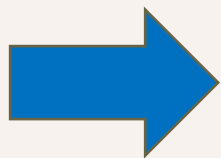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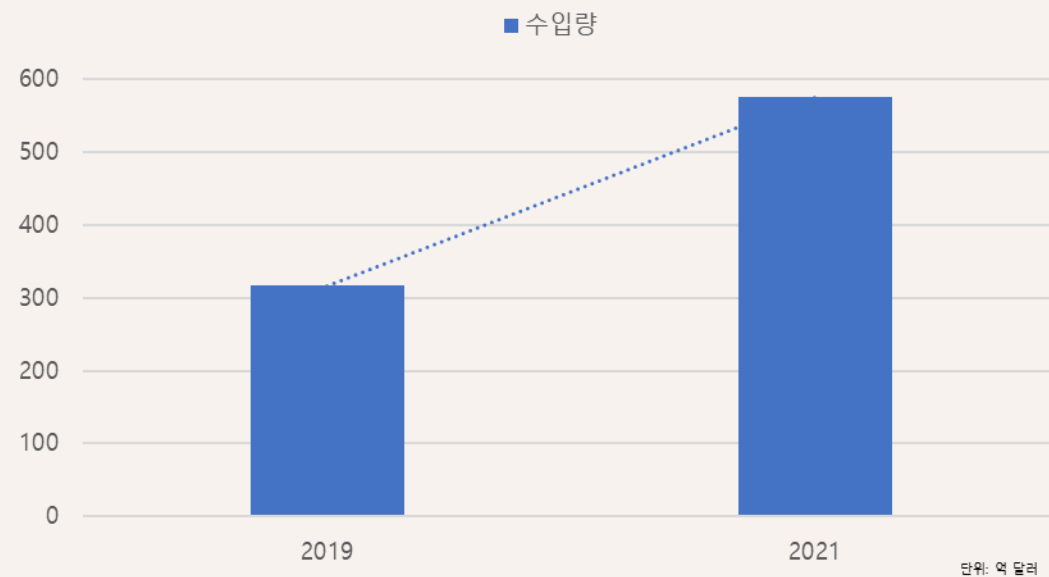
- 보수 성향의 총리 재임
- 대만산 반도체의 중요성
- 실제 경제효과 미미

1) 现, 이탈리아의 탈퇴 고려 왜? 경제 효과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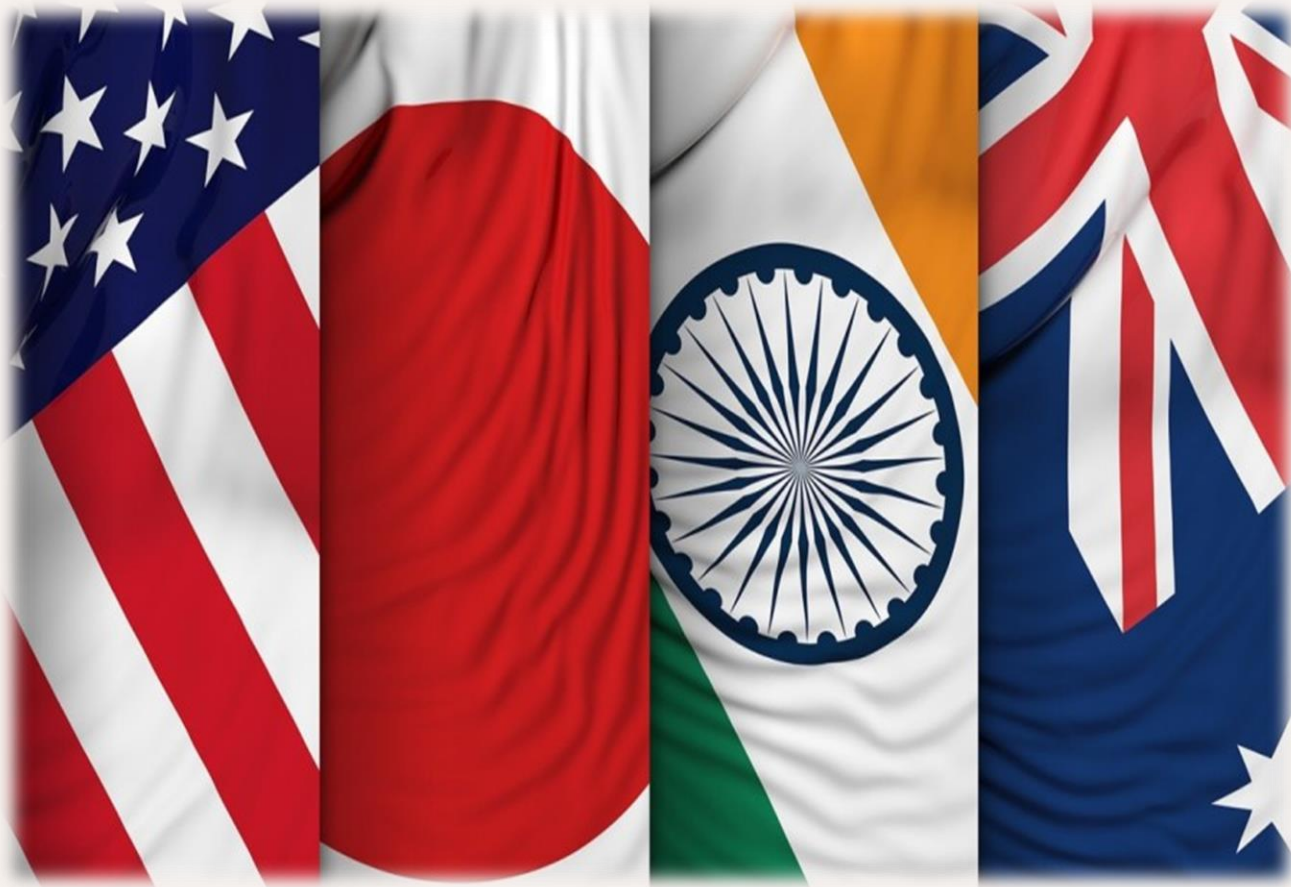
대중국 수출량



대중국 수입량



- 수출량의 증가는 미비, 수입량은 대폭 증가로 이탈리아 손해
- 이탈리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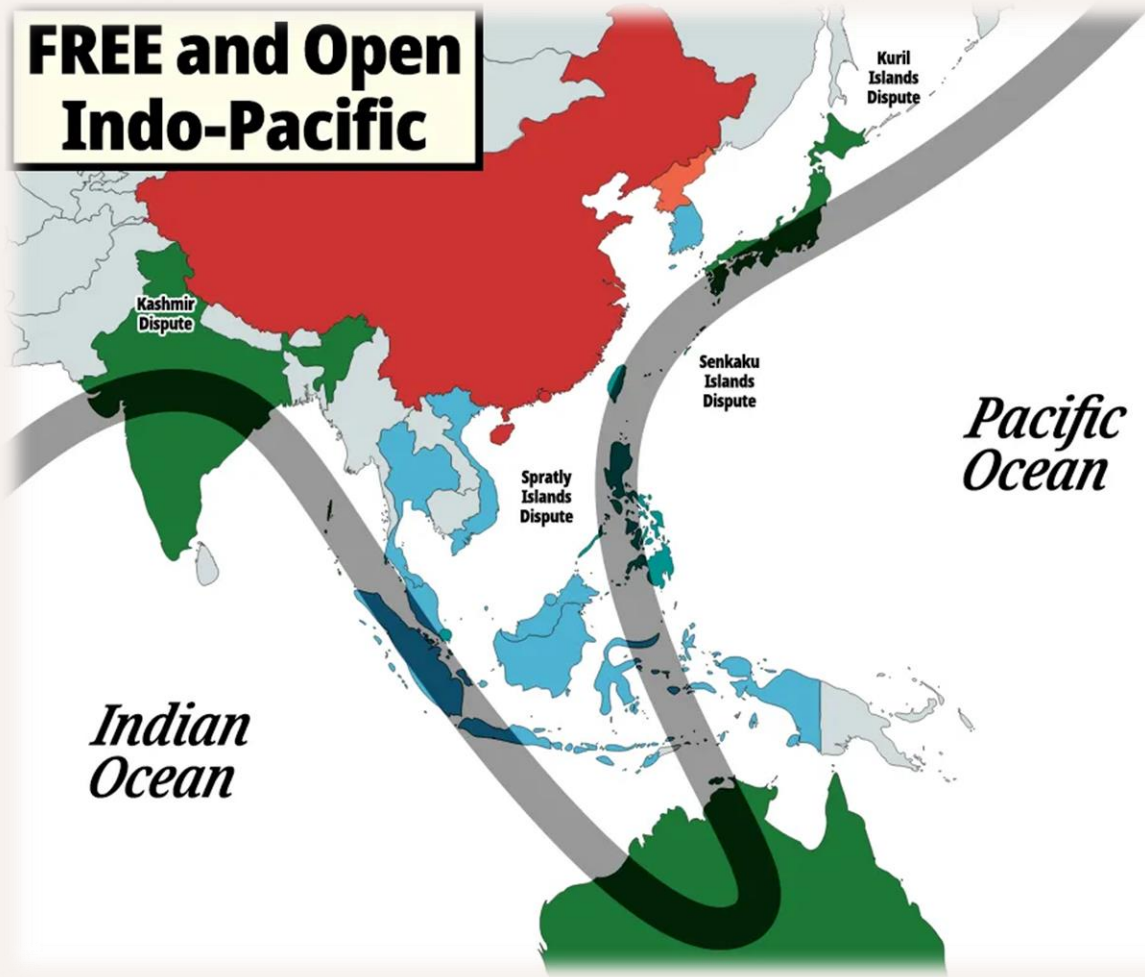


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 일대일로 견제 목적으로 체결된 안보 협력체

⇒ 쿼드 4개국(미국, 인도, 일본, 호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

FREE and Open Indo-Pacific



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 일본이 최초로 역설
- 쿼드 국가들이 주도하면서 중국 견제
- 2020년 한국도 가맹국으로 초청받음
- 미국은 다양하게 안보 협력체를 구성하며 중국 견제
 - IPEF(경제 협력체)
 - 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 협력체)

출처

<https://blog.naver.com/sgang71/222789484314>

[file:///C:/Users/82104/Downloads/17-11_%EC%A4%91%EA%B5%AD%EC%9D%98%20%EC%9D%BC%EB%8C%80%EC%9D%BC%EB%A1%9C%20%EC%B6%94%EC%A7%84%20%ED%98%84%ED%99%A9%20%EB%B0%8F%20%ED%8F%89%EA%B0%80%EC%99%80%20%EC%A0%84%EB%A7%9D%20\(2\).pdf](file:///C:/Users/82104/Downloads/17-11_%EC%A4%91%EA%B5%AD%EC%9D%98%20%EC%9D%BC%EB%8C%80%EC%9D%BC%EB%A1%9C%20%EC%B6%94%EC%A7%84%20%ED%98%84%ED%99%A9%20%EB%B0%8F%20%ED%8F%89%EA%B0%80%EC%99%80%20%EC%A0%84%EB%A7%9D%20(2).pd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96048&cid=62067&categoryId=62067>

<https://namu.wiki/w/Quad#s-4.2.1>

<https://namu.wiki/w/AUKUS>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05291&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62915.html

<https://namu.wiki/w/%EC%8B%A4%ED%81%AC%EB%A1%9C%EB%93%9C>

<https://news.cri.cn/xiaozhi/d99e6240-f75a-6532-fe3f-df9ea8cb1898.html>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650584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60391&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출처

file:///C:/Users/82104/Downloads/17-11_%EC%A4%91%EA%B5%AD%EC%9D%98%20%EC%9D%BC%EB%8C%80%EC%9D%BC%EB%A1%9C%20%EC%B6%94%EC%A7%84%20%ED%98%84%ED%99%A9%20%EB%B0%8F%20%ED%8F%89%EA%B0%80%EC%99%80%20%EC%A0%84%EB%A7%9D.pdf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2/09/28/75VUPQJTEZBRTGIVGJT4PXU5VQ/>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5/20230511486307.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0101057548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1533#home>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9198&mid=a20200000000

<https://www.ddanzi.com/ddanziNews/759651719>

https://kr.theepochtimes.com/%EA%B8%B0%EB%8C%80-%EC%9D%B4%ED%95%98-%ED%9A%A8%EA%B3%BC%EC%97%90-%EC%9D%B4%ED%83%88%EB%A6%AC%EC%95%84-%E4%B8%AD-%EC%9D%BC%EB%8C%80%EC%9D%BC%EB%A1%9C-%ED%83%88%ED%87%B4-%EA%B2%80%ED%86%A0_648802.html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1022915.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2033400097>

출처

<https://namu.wiki/w/%EC%95%84%EC%8B%9C%EC%95%84%EC%9D%B8%ED%94%84%EB%9D%BC%ED%88%AC%EC%9E%90%EC%9D%80%ED%96%89>

<file:///C:/Users/82104/Downloads/fileDownload2.pdf>

https://kr.theepochtimes.com/%E4%B8%AD-%EC%9D%BC%EB%8C%80%EC%9D%BC%EB%A1%9C-%ED%94%84%EB%A1%9C%EC%A0%9D%ED%8A%B8-%EC%B0%B8%EC%97%AC%EA%B5%AD-%EB%B9%9A%EB%8D%94%EB%AF%B8%EB%A1%9C-%EB%A7%8C%EB%93%9C%EB%8A%94-%ED%95%98%EC%96%80_490885.html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116/117460964/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323540004921>

<https://www.icc.org.cn/trends/mediareports/1623.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61290739682737594&wfr=spider&for=pc>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61112250707612325&wfr=spider&for=pc>

<https://www.chosun.com/6ZDNY5LLFFFBLMANT6XM7H3SN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ld=ART0023841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41115000448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ld=ART002384123>

출처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11091513001#c2b>

<https://www.youtube.com/watch?v=mpAJSDVjoCA>

<http://www.nw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184>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6980&sSiteid=2&searchReqType=detail&pcRadio=&categorySear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or_nm=§or_cd=&itemCd_nm=&itemCd_cd=

[중국 일대일로의 기회와 시사점 \(tistory.com\)](#)

[용어풀이 221]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pdf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43호\) \(keei.re.kr\)](#)
